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고순제 전도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여호수아 4:15-24 12 개의 돌로 세워진 길갈의 기념비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302장 /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small>(통일찬송가 408장)</small>
	현신과 나눔
	봉 헌 / 김훈테 집사, 유동숙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살과 세상으로	*비주소서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최내권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23:20-33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상에세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는 쉽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연는다. 또는 고통을 통해서 유혹을 극복하면서 연기도 한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이 건강한 영성을 얻는 데는 네 가지방법이 있다.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숙고하라.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셋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넷째,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라.
자기만의 환상, 죄의 경향을 하나 둘 버리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불가항력적인, 그러나 아직까지 감춰진 장애물을 보기 시작하라.
우리는 잘못을 지지를 때마다 연약함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 자신을 더 깊게 통찰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교만한 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기를 진지하게 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같은 걸림돌에 다시 걸려 넘어진다.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 / 버나드 벵글러

찬 주간의 기도

"내가 인정 받지 못한다고 성내고, 내가 애 쓴 만큼 성취하지 못했다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세우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영생을 받으리니. 나의 소망은 너께 있나이다.
내가 취하지 아니하며,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은 주의 은사로 구원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나의 영혼은 주의 은사로 구원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나의 영혼은 주의 은사로 구원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삼과 신앙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기도 없이 크리스천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기도가 이런 절대 절명의 자리에 있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기도는 영혼의 숨소리이기에,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줄어든다는 것은 위기 신호다. 영혼의 숨이 가물거리는 것이 된다. 숨 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살려는 삶이 더 무모하다.

영적 침체도, 기도중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 조엘 비키(Joel R. Beeke)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Disease and Cure』라는 책에서 말하는 영적 침체의 5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단계: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번거러워 진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발걸음도 뜸해진다. 이전 개인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영적침체의 시작이구나"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2 단계: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단계"

개인 기도가 멈추면서, 그 다음으로 그 병이 번지는 곳은 신앙생활의 형식화이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린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 같지 않다는데 있다. 모든 것이 형식과 타성으로 변한다. 예배도 찬송도 감동이 없다.

3 단계: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 부패성이 점점 증가하는 단계이다.

4 단계: "세속화가 증가하는 단계"

세속화가 증가한다는 것은, 외적 현상의 영적침체를 다루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영적으로 침체되기는 되었지만, 쉬쉬하면서 속으로 굽아터진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갈때까지 가서 밖으로까지 드러나게 되는 단계다.

5 단계: "성도의 교제도 사라지는 단계"

물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 부패해서, 현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엉망이다. 그래도 실낱같은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었는데, 이 마지막 5 단계는 성도의 교제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한다. 이전 그 주위에 믿는 친구들도 없고, 세상친구들로만 포진된 상태이다. 적극적으로 죄도 짓고, 악도 행한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런 침체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선, 말씀이나 설교, 신앙도서를 통해 영적침체를 자각하는 것이다. 둘째, 철저한 회개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다. 영적침체의 시작도 기도이고, 그 침체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도 기도이다. - 도원욱 목사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7월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간입니다.
2. **Power Prayer** 더 풍성한 남은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운동에 불을 붙입니다.
3. 여름학기 주일성경공부가 계속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정기제직회** 중심 친교 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사역준비를 위한 제직회를 가집니다.
5. **방학**: 자녀들이 시간을 지혜롭고 활용하며,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 동정 : 구민/은강 (타주 여행)

♥생일 축하♥ 오정은(7/14) 이광호 (7/14) 홍현근(7/18) 구은강 (7/28)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건강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운정 학생(은)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주일예배기도	7/21	7/28	8/4	8/11
		고순제전도사	최내권집사	장영현전도사	최선운집사
섬김	금요일예배기도	7/26	8/2	8/9	8/15
		구민 집사	최선운집사	김훈태집사	정홍렬목사
이	주일헌금위원	7/21	7/28	8/4	8/11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주	주일안내위원	7월		8월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 여호수아 3:1-17

강둑까지 물이 넘치는 요단강 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사장들이 순종할 때,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 상류에 산처럼 쌓이게 됐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살던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이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 애쓸 때, 가끔은 시험에 빠질 수 있어도 멀리 가지 않고 바로 돌아올 수 있다. 잠시 한눈 팔거나 잠시 엉뚱한 곳을 헤매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해야 한다.

12 개의 돌로 세워진 길갈의 기념비 / 여호수아 4:15-24

요단강을 건너 후, 이스라엘이 12 개의 돌로 세웠던 기념비가 가진 세 가지의 유익들은?

첫째, 기억을 돕는 중표가 되도록,

둘째,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는 능력을 위해,

셋째, 교육과 신앙계승을 위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많은 신앙유산의 남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2 개의 돌로 세워진 길갈의 기념비 / 여호수아 4:15-24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 열 두 개의 돌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 세 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흐른 후에도, 이스라엘은 요단강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요단강 한 가운데에서 돌을 가져와 세우게 하셨습니다. 세운 돌들을 보면 당시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돌로 인해 이스라엘은 요단강 도하 과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후, 많은 체험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름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져 갈 수 있으므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줄 무언가를 많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재산이 됩니다.

둘째, 길갈에 세운 열 두 개의 돌은 이스라엘이 이후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난관이 닥칠 때 마다 열 두 개의 돌들은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재산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에 초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삶의 신앙적 재산과 힘을 지닙시다.

셋째, 길갈에 세운 열 두 개의 돌은 후세 교육을 위함입니다. 후손들에게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강한 손에 관하여 설명하며 교육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그 유산을 발판으로 삼아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좋은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만일 기억이 희미해졌다면, 지금 그 기억을 되살립시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그 체험을 발판 삼아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혼이 잘 될 때까지 내가 밤사에 잡히고 감금하기를 간구하노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July 21,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7월 21일

5-29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포화상태일 때
안타까울 때
어려울 때
이러한 순간에는
이러한 순간에는



당신은 약할지라도
당신 안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